

# 전남 최대 규모 신안조선타운 8년만에 일반산단지정 해제

조선산업 침체·수요 대비 과도한 규모 등 원인...토지소유자·주민 등 피해 우려

전남도내 일반산업단지 중 가장 면적이 큰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이 8년여만에 해제됐다. 전남에서 산업단지 지정 해제는 지난 2014년 말 보성신소재산업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국내 조선산업의 침체, 수요 대비 과도한 규모, 공급 위주의 산단 정책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이 취소되면서 그 수혜를 기대했던 토지소유자, 인근 주민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17일자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5일 지정 고시된 신안조선타운 일반산단을 지정 해제한다”고 밝혔다.

신안조선타운 일반산단은 신안군 압해읍 가룡·북룡·신용·학교·신장·장감리 일원으로, 면적은 1335만4646㎡에 달한다.

일반산업단지 중에서는 전남도내에서 가장 크고,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하면 광양산단(9645만5000㎡), 여수산단(5065만㎡), 대불산단(2088만7000㎡)에 이어 4번째 규모다.

산단 지정 해제에 따라 지난 2009년 8월 도시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관리지역 845만4090㎡, 농림지역 267만6156㎡, 미지정 공유수면 222만4400㎡도 환원됐다. 사업시행자는 관리·농림지역, 공유수면 등을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택건설용지, 상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안군과 전남도는 재무적 투자사로 참여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2013년 1월 사업시행자인 서남개발(주)의 지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신규 사업시행자 모집을 공모했으나 응찰자가 없었으며, 기업방문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도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전격적으로 산단 지정을 해제했다.

연간 6조3000억의 생산유발 효과, 3만여명의 고용효과, 400억원의 지방세 수입을 전망하고 추진된 사업이 8년여 만에 물거품이 된 것이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이주대상자는 북룡리 11세대(27명), 가룡리 112세대(287명), 신장리 40세대(93명), 장감리 58세대(131명) 등 합정 221세대(538명)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다 신안군의 요청도 있어 산단 지정을 해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국립 목포해양대와 광주일보는 21일 오전 최민선(왼쪽) 목포해양대 총장,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 등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해양대 회의실에서 전남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지역 어촌 특화 지원 등의 분야에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목포해양대-광주일보 MOU 체결

전남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어촌 특화·어민 소득증대 협력

국립 목포해양대와 광주일보가 전남의 해양수산 분야 경쟁력 강화, 지역 어촌의 특화 및 어민 소득 증대 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1일 오전 최민선 목포해양대 총장, 김여송 광주일보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해양대 회의실에서 전남 해양수산 경쟁력 강화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향후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

홍보 및 협력사업 다각화 등에 나설 예정이다.

목포해양대는 해양수산분야 인재와 최첨단 해양수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배출한 인재들이 국내외의 다수의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역 해양수산 거점대학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호남 최대 신문사인 광주일보는 목포해양대의 성장과 지역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목포해양대는 해양수산 관련 연구 성과

등을 광주일보와 공유하며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민선 목포해양대 총장은 “가장 높은 취업률, 전국 최고의 장학금 수혜 비율, 최신식 도서관 건립 등 목포해양대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주일보와 함께 지역사회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 나주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장 편의시설 임대 ‘대박’

(재)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 식당, 카페, 스낵코너, 편의점, 자동판매기 등 편의시설 영업자를 선정하면서 1억4000만원의 임대 수익금을 올렸다.

(재)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는 21일 “박람회장 편의시설 영업자 임대 수익으로 목표액(1억원)을 초과 달성한 1억4000만원의 수익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람회장 내 관람객 식당은 전남지역 친환경 채소와 콩 불고기, 바비큐,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뷔페식당 1개소와 지

뷔페식당·카페·편의점 등 1억4천만원 수익금 확보

역 특산품인 나주곰탕을 비롯해 비빔밥, 돈가스, 각종 덮밥 등을 판매하는 일반 식당 1개소가 각 400석 규모로 운영된다.

카페에서는 각종 음료와 빵 종류를 맛볼 수 있고, 스낵코너와 편의점에서는 케밥, 닭 꼬치, 소시지, 과자, 아이스크림, 컵라면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한다. 조직위원회는 관람객들의 동선을 고려해 박람회장 곳곳에 식음시설을 적

절히 분산 배치하고, 나주시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영업자들의 위생, 친절, 안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스낵코너와 편의점의 경우 텐트 형태가 아닌 목조 및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남도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세상을 바꿀 새로운 삶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오는 5월 5일부터 29일까지 나주 소재 전남도농업기술원과 빛가람혁신도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이세돌 “알파고 원하면 재대결 가능”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와 세기의 대결에서 패한 이세돌 9단이 재대결 의사를 내비쳤다.

이세돌 9단은 21일 제주공방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지만 지난 대국에서 알파고를 어느 정도 파악했기 때문에 알파고가 재대결을 원한다면 이른 시일 내에 치르는 조건으로 다시 대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바둑을 오랜 기간 두면서 의욕이 조금 없어졌는데 알파고와의 대결 덕분에 의욕이 다시 생겼다”며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세돌 9단은 다만 자신보다는 후배 기사들이 알파고와의 차기 대국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고 양보했다.

한국기원 측은 이세돌 9단이 승리한 4국 종료 후인 지난 13일 데미스 허서비스 팀마인드 최고경영자(CEO)에게 다시 한번 대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허서비스 CEO는 “구글 본사와 상의해야 한다”며 확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인간 최고수 이세돌 9단은 9~15일 알파고와의 ‘세기의 5국’에서 1승 4패로 우승 타이틀을 알파고에 넘겼다.

/연향뉴스

## 제5대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박유복 인스나인 대표 선임



박유복 인스나인 대표가 제5대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으로 선임됐다.

광주시는 21일 디자인센터 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순위 원장 후보로 추천한 박 대표를 선임했다. 박 대표는 2005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디자인 전시부장, 2009 광주디자인비엔날레 큐레이터를 지냈다. 현재 도예품, 디자인 전문업체인 인스나인을 맡고 있다. 임기는 3년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r

##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

담양 234억 투입 생산유발효과 2324억 ...고흥 641억 투입 796명 고용 창출

중소기업청이 신규 지정한 5개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가 포함됐다.

지역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담양 인문학교육 특구의 경우 2020년까지 총 234억원 을 들여 가사문학 등 인문학 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문학 생태교육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324억원의 생산유발 및 3595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고흥 분청사기 문화예술 특구에는 2020년까지 모두 641억원이 투입된다. 분청사기터 발굴 및 전

시 등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 1320억원의 생산유발 및 796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구제도의 이점을 잘 활용하면 확실히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할 수 있다”며 “전남의 풍부한 지역 특화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고용직 결혼정보회사

추천회원

재혼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27~42세

공무원(5급~9급) 28~47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6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경매학원 금맥강좌

경매 실무 위주 단기 강좌입니다. 경매에 관심있는 분이나 컨설팅업에 도전하려는 분은 지금 연락주시요. 경매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은 열립니다. 경매 어렵지 않습니다. 경매 완전 초보에서 실전 투자까지 1개월 완성입니다.

수시 접수

시간

오전 반 화·목 10:00~12:00

오후 반 화·목 19:00~21:00

주말 반 토·일 14:00~16:00

장소 : 장동로터리 한국토지경매 4층(지하철 문화전당역 5분)

과목 : 실전경매(1개월 완성)

교수진

한국토지경매연구원장 김광민 (주)Today 옥선 소장 이은진

실전경매 교수 양성의 요람

한국토지경매학원

062-229-1512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우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어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집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천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전혀 문외한이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